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조중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60호 [루계 제23112호] 주제99 (2010)년 6월 9일 (수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 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사설

인민에 대한 우리 당의 사랑과 은정속에 일떠선 새 세기의 위대한 창조물

대동강파수종합농장의 능력 확장
공사가 성과적으로 끝난 소식은
우리 대고조진군을 다그쳐나가는
우리 인민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
겨주고 있다.

위대한領導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능력 확장된 대동강파수종합농장을
찾으시고 짧은 기간에 세계적인 과
수농장을 훌륭히 일떠세워 대하
여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는데 군인
건설자들의 위용을 높이 평가하시
면서 농장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
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쇠상급
의 대규모파수종합농장을 마련해 주신
경에 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대동강파수종합농장
이 새 세기의 면모에 맞는 위대한
창조물을 일떠서게 되었다.

대동강파수종합농장은 수백정보의
면적에서 수백만그루의 파일과
무를 재배하며 많은 파일을 생산,
가공, 보관할 수 있는 굴지의 파수
농장이다.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대규모파수
농장이 일떠섬으로써 수도시민들에게
더 많은 파일을 공급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되었으며 우리
인민의 리상이 실현되는 행복한
앞날을 그려보게 하는 사회주의의
무드로원의 본보기가 되었다.

대동강파수종합농장은 우리 인민
들에게 천만가지 모든 행복을 안
겨주시려고 언제나 마음쓰시는
경에 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온정속에 일떠선 세계적인 대규모
파수농장기지이다.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는 대동강기
슭에 대규모파수종합농장을 끝없이
펼쳐진 파길숙에 끊임없이 펼쳐진
파수의 바다는 대고조의 불길속에
서 날을 따라 변모되는 우리 조국
의 모습을 보여주는 희원한 화폭으로
서 우리 인민에게 강성대국의 희
망찬한 앞날을 예고해 주고 있다.

대동강파수종합농장은 우리 인민
들에게 세상에 부림없는 생활을 안
겨주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엄원
과 우리 당의 구상을 현실로 펼친
위대한 창조물이다.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파일을
운송해 한 구상을 펼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수십차례의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였으며 전설을 빠
름 속도로 계속하기 위한 혁명적
조치들을 취해주었다.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는 지난해 11월에는

새로 건설된 대동강파수종합농장을

찾으시고 현지에서 농장의 능력을

짧은 기간에 대규모로 확장할 때 대

한 전투적사업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방향과 방도를 밝

혀주시였다.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서는 물을 퍼줘야 한다는

숭고한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시

는 경에 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대동강파수종합농장

이 새 세기의 면모에 맞는 위대한
창조물을 일떠서게 되었다.

대동강파수종합농장은 일련으로
경에 하는 장군님이시다. 불과 2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원통형에

펼쳐진 《선군11경》은 경에 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의 빛나는

결심이다.

대동강파수종합농장은 당시 구상

과 결심을 빛나는 현실로 퍼져나가

는 군인건설자들의 결사판결의

의지가 냉은 고귀한 결정체이다.

조선인민내무군 군인건설자들은

지난해 11월 새로 건설된 파수

종합농장을 찾으오신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 주신 전투적사업을 결

집과 투철한 사상정신력의

결정체이다.

우리는 조국의 강성번영과 인민

의 행복을 위하여 끊임없는 현지

지도 강행군길을 걸으시는 위대한

장군님과 리상도 각오도 결임도 하

나가 되어 폭풍에 전진하는 장군님

의 강행군동지가 되어 애 한다.

누구나 뜻깊은 올해를 인민의 행복

이 퍼져나는 번영의 해로 되게 하

는 우리 당의 구상과 도를 심

장길이 새기고 인민생활향상을 위

한 오늘의 총공격전에 계속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당의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더욱 높

이 들고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

에서 우리 당이 펼치는 작전과 구

며세우기 위하여 군인건설자들을

따라 돌격화원들이 달려오고 련판

부문에서 필요한 설비, 자재들을

원만히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벌린

전투들은 령도자의 두리에 천만군

민이 일심단결된 우리 사회주의사

회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것이다. 우

리 군대와 인민은 일심단결의 정신

으로 원통지구의 회한 전변을

안아온처럼 강성대국의 대문을

우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조선인

민내 무군 군인건설자들을 비롯한

강력한 건설력량을 파견해 주신분이

경에 하는 장군님의 명령으로

원통지구에 퍼져나가는 령도의 힘을

더해주고 우리 인민들을 기쁘게 해주

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령도의 일어

나고있다. 우리 식의 주체 철생산체

계가 확립되고 주체비단론이 폭포

전체 당원들과 군인들에게 강성대국건설대전

의 중요한 전투초소를 말겨준 당의

신임과 기회를 언제나 길이 자각하

고 대고조시대가 요구하는 일군,

집단에 없어서는 안될 일군, 군중

의 심장에 남는 총복이 되기 위하

여 모든 지혜와 경력을 다 바쳐야

한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군인들에게

강성대국승리의 날이 눈앞

에 왔다는 신심과 용기를 복돋아주

고 있으며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세상을 들었다는 통장훈을 부

르고 계속 전진해 나가길 일념으로

천만대중의 심장을 끊어 하고있다.

우리는 훗날의 신심과 련판을 끌어

나가려는 결사의 각오와 혁명적열

정, 최첨단돌파로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려는 비상한

의지가 전체 인민들의 심장마다에

착착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

의 대고조수를 향해 전진해나가는

군인기백으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동방조선에서 두 중대기적이 일어나다

장구한 인류사의 갈피를 떠나보면 보통 상식으로 써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 놀라운 사회적 기적들이 적지 않게 기록되어 왔다. 내가 이 정치론문에서 서술하려는 조선의 두 기적은 거듭되는 평양체류기간에 직접 견문하고 『김정일조선』과 『인간의 해방과 주체사상』을 출판하면서 그리고 조선학자·학자·학자들에 대한 다년간의 연구에 심혈을 바쳐온면서 깊이 확인한 바이이지만 인류사의 다른 사회적 기적들에 전수해 주는 심원한 의미와 거대한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는 중대 기적들이다.

바로 이것이 동방조선으로부터 두 대양 건너에 있는 이 민주평화학자에게 인류와 세계 앞에 그에 대해 전하고 싶은 충동을 주었으며 결국 그에 대한 격찬의 붓을 들게 하였다는 것을 부언하고 싶다.

1

조선에서의 첫번째 중대기적을 서술하자면 비범한 사상자리의 거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2008년 9월에 발표하신 명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파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이다』에서 천명하신 다음의 명제를 반드시 인용하고자 않으면 안된다.

『크지 않은 우리 나라가 단독으로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 반동들과 싸워 나라와 민족, 사회주의를 수호한 것은 세계 사적 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승리입니다.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서 강령과 전통을 부리는 미국 주의의 친략책들을 제작분해하고 미제와의 총포성이 없는 정치군사적 대결에서 혼란을 베풀어온 우리의 선군혁명업적은 말그대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마지막년대인 1990년대 초였던 것이다.

미국은 쏘련이 붕괴해제되자 세계제국주의와 연합하여 대조선포위환을 겹겹으로 죽이고는 『북조선핵개발설』을 내둘리면서 조선의 사회주의를 붕괴시킬 전쟁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세계 군사 분석가들은 핵전쟁발사국소리가 지척에서 들려온다고 전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각으로 1993년초 평양은 먼저 하나의 큰 군사령장을 내렸다. 전국, 전민, 전군에 충전선상태로 넘어갈 때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이었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바우리의 언론들은 이 명령을 가리켜 『군사폭탄』이라고 평하였다.

이어 세계는 평양의 큰 정치성명을 들었다. 조선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한다는 정부성명이었다. 아프리카의 보도계는 이를 두고 『정치폭탄』에 비유했었다. 탈퇴는 미국의 핵독점주의의 기둥인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파편구를 내고 그것을 통해도 무너지게 만들수 있었다. 결국 이 두 『폭탄』으로 하여 핵전쟁을 통한 미국의 조선봉파작전은 조미기본합의문과 미대통령의 담보서 한으로 바꾸어졌다. 세계언론들은 두장의 항복서라고 평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사회주의 수호전, 조미대결전의 60년사를 허슬려보며 조선의 혼란승리의 서막은 20세기 50년대에 열렸다고 생각한다. 『비사 조선전쟁』과 같은 미국도서들까지도 조선전쟁에서의 평양의 승리가 아메리카제국으로 하여금 2000년의 전쟁전략에 차운다. 60년대의 무장간첩선 『루에블로』 호사건에 『EC-1 2 1』 대형간첩비행기 사건에도, 70년대의 『관문점 사건』 때에도 항공모함과 핵무력까지 긴급 출동시켜 놓고 조선을 끌어시키고 정복할 것이라고 큰소리를 쳤지만 결파는 그들이 바라보는데 되지 않았다.

80년대의 대결전에서도 조선이 승전을 했었다. 60년대와 70년대의 대결에서 혼란의 수치를 당한 미국은 수십만명과 군장비들을 실진연습상태에 두었다가 즉시 그 대무력을 하늘과 땅, 바다에서 군사분석선이 복지로 진입시켜 사회주의 조선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각본을 짜놓고는 최대 규모의 『미스피리트』 핵전쟁연습을 해마다 벌렸다. 그러나 조선의 강력한 군사적임과 무비의 담력을 통해 미국의 전쟁침공작전은 제작당하였다.

총포성이 없는 다음번 큰 싸움은 이미 언급된 90년대의 핵대결전에 이어 벌어진 2000년대 초의 핵대결전이었다. 미국은 『사회주의의 마지막 큰 들판』이기지게 하려고 2003년초 다시금 대규모의 무력을 조선반도주변에 집결시키고 핵선제타격으로 조선을 초토화할것이

라고 하였다. 90년대보다 더 큰 『정치폭탄』이 이 지구를 진감시켰다. 평양의 정부성명이었다. 성명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만은 린시정지시켜 놓았던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으로부터의 탈퇴효력을 즉시 발생한다는 것을 선언하였다. 그것은 미국이 또 다시 조선반도주변에 긴급출동시켰던 대핵무력에 힘수령령을 내리게 만들었다.

지난 60년간의 격렬한 사회주의수호전, 조미대결전에서의 조선의 혼란승리, 나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전쟁사가들은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인류전쟁사는 대국앞에서 소국의 폐전사이며 대국과의 전쟁에서는 소국의 폐배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평통상으로는 78배에 이르고

인구도 대비할 수 없이 많은 『유일초대국』

과의 정치군사적 대결에서 작은 나라 조선이 단독으로 맞서 혼란승리를 하였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소국폐전숙명론에 종지부를 짓은 것이다. 달리 표현한다면, 인류전쟁론에 속어 할 수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당의 선군혁명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는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

위에 달달히 올라섰으며 강성대국건설의 진격로를 열고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왔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근본

담보를 확고히 마련하였으며 사회주의 경제강국을 일睹세우는 선군혁명종

군을 다그쳐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에서의 커다란 성과 — 이것이 조선에서 일어난 다른 하나의 중대 기적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정치강국으로서의 조선이 무엇보다 나를 훔쳐가고 있다.

지난해 4월 1일 공지구위성 『평양성 2호』의 성과발사가 세계에 준 충격은 너무도 큰 것이었다.

평양은 위성발사사를 앞두고 전세계를 향해 사전통보를 했었다. 그러나 제국주의 세력은 처음부터 조선의 위성발사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라고 기정사실화하면서 이 밖에서 제동을 걸었다. 발사한다면 유엔기구를 발동하여 세계제재의 품에 들어가고 곧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하였다. 허나 불과 조선이 아니었다. 평양은 위성발사는 대국들의 철권들이 아니라, 빼앗을 수 없는 자주적권리이다. 예전에도 발사할 것이라고 더 큰소리로 대답해 나섰다. 그저 적대세력은 평양이 발사하면 유엔을 저지하고자 하면서 오마케이션을 실은 활선들을 조선동해에 진입시켰다. 격렬한 대결이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준엄한 대결속에서는 웬만큼 큰 나라도 열번도 더 정복당하여 국가의 붕괴, 민족의 말살이라는 비극적 운명에 처하게 되리라는 것은 점점이 가고도 남아 있다. 허나 조선은 단독으로 제국주의 폭력의 포위속에서의 대결이었으며 현대적 무기 정도가 아니라 열핵무력의 포위속에서의 대결이었고 정치, 군사, 외교, 사상, 예술, 철학 등에서의 대결이었다.

그렇다면 조선의 백전백승의 기적은 어떤 무기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나는 이 론문에서 조선의 혼란승은 민족사적의를 횡설 초월하여 세계사적의를 가지는 중대 기적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사회주의 수호전에서의 조선의 혼란승은 스무번도 더 터쳤을 제3차 세계대전, 세계적인 전쟁을 미연에 막고 세계평화수호에 대한 거대한 한계를 하였다. 60년간의 조미대결에서 아메리카제국이 노린 것은 사회주의 조선을 정복하고 나아가서 조선반도를 침략의 발판으로 하여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아시아에는 물론 전세계를 지배하려는 것이었다. 때문에 세계 정치, 사상, 문화인류들은 사회주의 진영에 존재하는 시기 조선에서 총소리가 나면 그것이 제3차 세계대전, 열핵전쟁에 의해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었다.

조선은 인류사상 있어 본적 없는 사상의

들은 제1차 세계대전은 38개국의 참전과 4,000억 US\$의 손실에

60년간의 조미대결에서 아메리카제국이 노린 것은 사회주의 조선을 정복하고 나아가서 조선반도를 침략의 발판으로 하여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아시아에는 물론 전세계를 지배하려는 것이었다. 때문에 세계 정치, 사상, 문화인류들은 사회주의 진영에 존재하는 시기 조선에서 총소리가 나면 그것이 제3차 세계대전, 열핵전쟁에 의해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었다.

조선은 인류사상 있어 본적 없는 사상의

들은 제1차 세계대전은 38개국의 참전과 4,000억 US\$의 손실에

60년간의 조미대결에서 아메리카제국이 노린 것은 사회주의 조선을 정복하고 나아가서 조선반도를 침략의 발판으로 하여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아시아에는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는 일본을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아시아에는

